

醫學人物 연구와 鄉藥醫學

맹웅재^{1,2}, 김남일³, 안상우⁴, 강연석^{1,2}

¹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²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³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⁴한국한의학연구원

A Study on Medical Personnel and HyangYak medicine

Woongjae Maeng^{1,2}, Namil Kim³, Sangwoo Ahn⁴, Yeonseok Kang^{1,2}

¹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Research Center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³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⁴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ersonnel who had contributed Medical development in history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in this paper. The first, it is personnel that studied the medicine or treated a patient like doctors, medical researchers, physicians, nurses, etc.. The second, it is personnel that made law or systems about medicine or published the medical books. The third, it is personnel that received the medical treatment like patients or their protectors. The last, it is personnel that are teachers, students, friends, and relatives of people above mentioned. The studies of medical personnel in history are important. Those are more effective and easier informations than medicine itself.

This paper is the study on medical personnel about HyangYak medicine that solely made from HyangYak(鄉藥) and that of classifying the informations about these persons.

keywords : Medical persons, HyangYak(鄉藥), Korean medicine

I. 서론

의료와 의학은 종합문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학 자체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시대와 공간적 배경을 함께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 및 의학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연구 중 인물에 대한 연구는 한의사라는 전문가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의료·관광·

문화사업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서 중요하다.

기존에 개발된 한의학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연구는 『醫學人物列傳』 1·2¹⁾, 『儒醫列傳』²⁾, 『近現代 韓醫學 人物史』³⁾와 같이 유명한 醫師⁴⁾와 의학 관련 인물의 활동⁵⁾이나 저술⁶⁾ 및 가계⁷⁾⁸⁾에 대한 연구들이거나 ‘칭강의안연구’⁹⁾,

■ 접수 ▶ 2009년 2월 24일 수정 ▶ 2009년 3월 18일 채택 ▶ 2009년 4월 13일
■ 교신저자 강연석, 전북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407호
Tel 063-850-6984 Fax 063-850-7324 E-mail yeonkang@wku.ac.kr

※ 본 연구는 2009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의 보조로 진행되었음.

1) 안상우 외,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2007, 2008
2) 김남일, 儒醫列傳, 한의신문<<http://www.akomnews.com>>
3) 김남일, 近現代 韓醫學 人物史,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4) 최진우·안상우, 『夢叟 李獻吉의 생애와 학술 계통』, 『韓國醫史學會誌』, 2006;19(1)
5) 이선아·안상우, 『개인 文集을 통해서 본 醫學人物의 行蹟』, 『韓國醫史學會誌』, 2006;19(1)

『歷代名醫醫案』¹⁰⁾처럼 유력한 의사들의 치료기록¹¹⁾¹²⁾이나 한 환자의 지속적인 질병 및 치료기록¹³⁾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최근 『승정원일기』나 조선후기의 지리지에는 많은 인물 정보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의학인물들이 새롭게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학인물의 인적 정보들을 통일화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醫學人物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류를 시도해 보았으며, 인물연구에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한국의학사에서 그나마 기록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麗末鮮初의 鄉藥醫學¹⁴⁾과 관련된 의학인물을 발굴하여 정리해 보았다.

II. 본 론

1. 의학인물 연구의 정의와 분류

『醫學人物』이라는 것은 의학 및 의료에 기여한 인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고려말부터 조선초기까지의 한의학에 기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의학인물은 다음과 같은 네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의서를 비롯한 다양한 의학 및 의료 콘텐츠를 직접 만들거나 시술하는 인물(의학 연구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다.

둘째는 다양한 의학 및 의료 콘텐츠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출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학 및 의료 관련 행정가, 출판가, 사업가 등)이다.

셋째는 의학 및 의료 콘텐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환자 및 환자의 친지들)이다.

넷째는 위 세 가지 범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의학인물연구』라는 것은 위와 같은 ‘의학인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정보 이외에도 해당 인물과 관련된 의학 및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당대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지리 및 의학적 환경과 인물들의 관계 및 인물과 인물들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의학인물 연구의 필요성

의학은 모든 문화 여건과 관련된 종합문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醫書의 내용 연구만으로는 당대 의료 문화 전체를 입체적으로 그리기는 어렵다. 고려 중엽부터 조선 전기에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던 鄉藥醫學은 고려와 원의 대립이라는 역사적 상황, 조선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왕조의 의지 뿐 아니라 조선 초기 官學을 주도한 지배세력의 성향, 전국에서 재배되거나 자생하는 약재 현황, 조선의 영토 및 기후 조건, 그리고 의서 편찬 인물 등에 대한 연구가 의서 분석 연구와 함께 진행되어야만이 향약의학의 모습을 정확히,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그 동안의 한의학 콘텐츠 발굴은 의서 중심의 의학 내부의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고, 한의학의 중요한 콘텐츠들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대부분 데이터베이스화되었다. 이러한 의서 중심의 콘텐츠는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활용대상자들이 전문가들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고, 타 학문분야와 타 산업분야의 콘텐츠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어렵다.

향후 한의학 콘텐츠의 개발은 기존에 확보된 의서 중심의 콘텐츠를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인이 쉽게 쓸 수 있게 해야 하고, 타 학문이나 산업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09년 7월 31일 『동의보감』 초간본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동의보감』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동의보감』의 의학적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천회에 걸친 논문과 수백권의 서적이 이미 출판되었다. 일반인들에게 『동의보감』이 훌륭한 의서라는 인식 심어준 계기는 이러한 논문과 전문서적들이 아니라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과 방송드라마였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무척

6) 김남일, 「韓國에서의 儒醫들의 活動-醫書의 編纂, 治療活動을 中心으로」, 『韓國醫史學會誌』 2007;20(2).
 7) 이선아, 「19세기 고창지방 의원 은수룡이 남긴 경험의안」, 『韓國醫史學會誌』 2005;18(2).
 8) 이선아, 「의학인물 연구에 있어서 족보의 필요성」, 『韓國醫史學會誌』 2007;20(2).
 9) 안상우, 차용석 외,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10) 김남일, 歷代名醫醫案,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11) 김남일, 「韓國醫史學에서의 醫案研究의 必要性和 意義」, 『韓國醫史學會誌』 2005;18(2).
 12) 홍세영·차용석 외, 「『承政院日記』의 진료기록 연구」, 『韓國醫史學會誌』 2008;21(2).
 13) 김훈, 「朝鮮時代 孝宗의 질병 및 死因에 관한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2004;17(2).
 14) 강연석·안상우, 「『鄉藥集成方』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鄉藥醫學」, 『韓國醫史學會誌』 2002;15(2).

15) 강연석, 「『鄉藥集成方』의 鄉藥醫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크다. 즉 『동의보감』 자체의 의학적 내용보다는 집필자 허준과 동의보감을 둘러싼 인물들이 그리는 다양한 이야기가 당대 의학의 모습과 의료현실을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의학인물연구는 의학 및 의료 문화 콘텐츠를 문화 및 관광산업에 활용에 매우 적합한 연구가 된다. 의학인물은 의료문화와 의료시스템의 중심에서 있는 주체들로서 다양한 의학 관련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 콘텐츠 확충의 중심에 ‘의학인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의학인물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향약의학의 인물

고려 말 『三和子鄉藥方』으로부터 조선 정종 때의 『鄉藥簡易方』, 태종 때의 『鄉藥救急方』, 『鄉藥濟生集成方』, 세종 때의 『鄉藥採取月令』, 『世宗實錄地理志』 등을 거쳐 『鄉藥集成方』이 1차 완성되었고, 이후 성종 때에 이르러 『향약집성방』은 增補, 本草 圖經 및 諺解 등의 보완작업이 진행되어 2차 완성되었다.

이러한 전 과정에 약 1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만큼 이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은 매우 많을 것이나 한국고전번역원의 『조선왕조실록』, 『한국의약인명사전』(의성당), 『朝鮮醫書誌』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38명¹⁶⁾을 선정하였으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Table 1> 여말선초 향약의학인물 38명

서적	대상자	근거	내용
삼화자향약방	三和子		삼화자방이 있었음
향약간이방	權仲和 徐贊	향약제생집성방 서문(1398)	권중화가 서찬에게 향약간이방을 편찬시킴
향약해민경험방	金希善	태조실록(1393)	각도에 의학교수와 의원을 두고 양반 자제들을 교육, 향약해민경험방을 배워 질병치료
향약구급방	尹祥		발문 작성
	李之剛 崔自河 金奈	향약구급방 중간본 발문(1417)	제작 출판
			기여자

16) 權近, 權白, 權仲和, 權採, 金奈, 金士衡, 金順命, 金元罔, 金希善, 盧思愼, 盧重禮, 朴習, 朴允德, 朴乙祥, 朴仁, 朴暄, 房士良, 卞季良, 三和子, 徐居正, 徐贊, 申檣, 安敬良, 梁誠之, 兪孝通, 尹祥, 尹准, 李瓊同, 李棕, 李之剛, 蔣淳, 鄭包, 趙浚, 崔自河, 韓尙敬, 許琮, 許衡, 黃子厚 이상 가나다순.

	朴仁 權白 朴乙祥 蔣淳 朴暄 鄭包 朴習		
	黃子厚	세종실록(1427)	인쇄건의
향약제생집성방	權近 趙浚 金士衡 金希善 權仲和	향약제생집성방 서문, 발문(1398)	서문, 발문 작성 조준, 김사형, 김희선, 권중화 등이 제작, 출판
	韓尙敬 安敬良 金元罔 許衡 李棕 房士良	향약제생집성방 발문(1398)	제생원 소속으로 공이 있음
향약채취월령	卞季良 尹准		발문 작성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향약채취월령 발문(1431)	제작
세종실록지리지	尹准 申檣	세종실록지리지 서문(1432)	서문 작성
향약집성방	權採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향약집성방 서문(1433)	서문 작성 제작
	梁誠之	예종실록(1469)	
	李瓊同	성종실록(1478)	반포건의
	金順命	성종실록(1479)	
	盧思愼 徐居正 許琮	한국의약인명사전 성종실록(1488)	諺解

여말선초의 인물들의 정보는 현재 유력인사들을 제외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의서편찬과 관련된 하급관리들은 아주 간단한 정보조차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나마 남아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선택된 38명 중 확인가능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아래의 형식에 따라 정리를 하였다.

<Table 2> 인물연구에 필요한 인적 정보 항목

인적 정보 항목
1) 字
2) 號
3) 諡號
4) 생물연도
5) 本官
6) 출생지 및 거주지

- 7) 가족관계 : [증조부][조부][부][생부][형제][자녀][외조부][처부] 등
 8) 교우관계
 9) 과거 : [생원진사시][문과]
 10) 주요관직
 11) 학맥 : [스승][문도][문하생]
 12) 저서
 13) 유물 및 유적
 14) 연표

이 38명의 인물들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부류 중 첫째는 의서를 비롯한 다양한 의학 및 의료 콘텐츠를 직접 만들거나 시술하는 첫번째 인물들이거나 의학 및 의료 콘텐츠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출판에 관여하는 두번째 인물들이다.

첫번째 인물들은 權仲和, 盧重禮, 朴允德, 房士良, 徐贊, 黃子厚 등이다. 이들은 의학적 지식이 풍부했고 향약의서들의 집필에 크게 관여한 인물들이며,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 중 의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

두번째 인물들은 權近, 權採, 金士衡, 金順命, 金元罔, 金希善, 盧思愼, 朴習, 卞季良, 徐居正, 申檣, 安敬良, 梁誠之, 兪孝通, 尹祥, 尹淮, 李瓊同, 趙浚, 崔自河, 韓尙敬, 許琮 등이며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 중 직접 의료시술을 한 기록은 없으며, 출판과 행정에 관련된 인물들이다.

나머지 權白, 金奈, 朴乙祥, 朴仁, 朴暄, 三和子, 李綜, 李之剛, 蔣淳, 鄭包, 許衡 등은 현재 판단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물론 위의 분류는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들만을 갖고 판단한 것이므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 새로운 인물분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결론

‘醫學人物’이라는 것은 의학 및 의료에 기여한 인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네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의서를 비롯한 다양한 의학 및 의료 콘텐츠를 직접 만들거나 시술하는 인물(의학 연구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다.

둘째는 다양한 의학 및 의료 콘텐츠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출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학 및 의료 관련 행정가, 출판가, 사업가 등)이다.

세째는 의학 및 의료 콘텐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환자 및 환자의 친지들)이다.

네째는 위 세가지 범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의학인물연구’라는 것은 위와 같은 ‘의학인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정보 이외에도 해당 인물과 관련된 의학 및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당대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지리 및 의학적 환경과 인물들의 관계 및 인물과 인물들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의학인물연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존에 알려진 의학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 뿐 아니라 인물을 새로이 발굴해나가는 작업이다. 이것은 한국의학사 전시기에 걸쳐 부족한 자료를 새로 보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체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 기록물이 향약의학이므로 이와 관련된 인물연구는 한의학 인물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權近, 權白, 權仲和, 權採, 金奈, 金士衡, 金順命, 金元罔, 金希善, 盧思愼, 盧重禮, 朴習, 朴允德, 朴乙祥, 朴仁, 朴暄, 房士良, 卞季良, 三和子, 徐居正, 徐贊, 申檣, 安敬良, 梁誠之, 兪孝通, 尹祥, 尹淮, 李瓊同, 李綜, 李之剛, 蔣淳, 鄭包, 趙浚, 崔自河, 韓尙敬, 許琮, 許衡, 黃子厚 이상의 38명을 향약의학과 관련된 의학인물로 발굴하였으며 남아있는 자료들에 따라 아래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번째 인물들은 權仲和, 盧重禮, 朴允德, 房士良, 徐贊, 黃子厚로서 향약의학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이다.

두번째 인물들은 權近, 權採, 金士衡, 金順命, 金元罔, 金希善, 盧思愼, 朴習, 卞季良, 徐居正, 申檣, 安敬良, 梁誠之, 兪孝通, 尹祥, 尹淮, 李瓊同, 趙浚, 崔自河, 韓尙敬, 許琮으로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 중 직접 의료시술을 했거나 의서를 집필한 기록은 없으며, 출판과 행정에 관련된 인물들이다.

세번째 인물들은 權白, 金奈, 朴乙祥, 朴仁, 朴暄, 三和子, 李綜, 李之剛, 蔣淳, 鄭包, 許衡이며, 현재로서는 판단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의학인물에 대한 연구는 한의학의 콘텐츠를 전문가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과 주변 학문 및 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VI. 참고문헌

1. 강연석, 『『鄉藥集成方』의 鄉藥醫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鄉藥醫學』, 『韓國醫史學會誌』 2002;15(2).
3. 김남일, 『韓國에서의 儒醫들의 活動-醫書의 編纂, 治療』

- 活動을 中心으로-」, 『韓國醫史學會誌』 2007;20(2).
4. 김남일, 「韓國醫史學에서의 醫案研究의 必要성과 意義」, 『韓國醫史學會誌』 2005;18(2).
 5. 김훈, 「朝鮮時代 孝宗의 질병 및 死因에 관한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2004;17(2).
 6. 안상우 외, 『醫學人物列傳 1』,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 연구센터, 2007.
 7. 안상우 외, 『醫學人物列傳 2』,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 연구센터, 2008
 8. 이선아, 「19세기 고창지방 의원 은수룡이 남긴 경험의 안」, 『韓國醫史學會誌』 2005;18(2).
 9. 이선아, 「의학인물 연구에 있어서 족보의 필요성」, 『韓國醫史學會誌』 2007;20(2)
 10. 이선아, 안상우, 「개인 文集을 통해서 본 醫學人物의 行蹟」, 『韓國醫史學會誌』 2006;19(1).
 11. 최진우, 안상우, 「夢叟 李獻吉의 생애와 학술 계통」, 『韓國醫史學會誌』 2006;19(1).
 12. 홍세영, 차용석 외, 「『承政院日記』의 진료기록 연구」, 『韓國醫史學會誌』 2008;21(2).
 13. 김남일, 近現代 韓醫學 人物史,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14. 김남일, 歷代名醫醫案,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15. 김남일, 儒醫列傳, 한의신문<<http://www.akomnews.com>>